

## 『醫心方』에 引用된 醫書

赤 堀 昭

小太郎漢方製藥

### 『医心方』に引用された医書

#### 要 約

江戸時代まで日本の医療の中心になっていた中国医学は、最初朝鮮半島を経由して伝来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しかし中国本土との直接交流の比重が増加するにつれて、医学理論や医療技術も直接中国から導入される機会が多くなったと考えられる。10世紀ごろまでの日本の医学についての記録は少く実際に行われていた医療の実態はほとんどわからない。断片的に残っている医療制度についての記録は、中国の医療制度に倣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が、細部には違いもあり、その違いが日本の風俗習慣に合わせて修正したものであるが、最初に朝鮮半島から伝えられた医学の影響を残しているためであるかは、日本と大陸双方の史料が不足しているために明かではない。

『医心方』は984年に編纂されたもので、現存する日本最古の医書である。撰者の序文や当時の記録がないため、編纂の目的など成立事情についての詳しいことは不明である。この書は全体が当時伝存していた書からの引用文からなり、撰者の所説は示されていない。引用書は医書が主体であるが約40の道教書や仏教書なども含んでいる。『医心方』は医学理論や鍼灸、養生なども取り上げられているが、それらの比重は少く、薬物療法を主体とした書である。この書に引用されている医書は早い時期に失われてしまったものが多く、書名には省略名と考えられるものがかかなりあるため、正確な名称もその数も不明であるが、約190種と推定される。現存する書と比較してみると、一部省略と考えられるものはあるものの、引用は概して原文に忠実であり、中国書に住々にして認められる皇帝の諱を避けるための改変や、編纂者による記術様式の統一整備などの作業は行われていないと考えられる。それらの書は大部分が中国書であるが、『新羅法師方』、『新羅法師流視秘密要術方』、『百済新集方』という3種の朝鮮書と思われるものを含めて、いて、どのような経路で日本に流入したかは明らかでない。失われてしまった書は個人の処方集のような比較的小さなものが多く、これはその応用範囲が狭いことやその主要部分が『千金方』などの医学全書に取り入れられたこととともに、日本の場合にはその後『医略抄』や『類医抄』など本邦人の手になる読みやすい書が著わされたことによるものであろう。『医心方』が外来書からの引用文からのみで成り立っていることは、当時の日本医学が新しい理論や治療方針を考え出すほど発達していたかったことを示すものである。しかし、それらの引用文の整理、排列は『千金方』や『外台秘要』などとは異なっていて、それらの書からの引用に際しても、もとの排列そのままではなく、新しい分類に従って適切な個処に組み入れている。このことは日本の医学が当時或程度の水準に達し、日本の風土に即した医学を確立しようという気運が起りつつあったことを示す事実と解してもよいであろう。

#### 1. 中國醫學의 導入

明治初년에 西洋醫學으로 轉換될 때까지 日本의 醫療의 중심이 되었던 中國醫學은 最初 朝鮮半島로부터 傳來된 것으로 되어 있다. 中國醫學의 受容에 관한 가장 오래된 記錄은, 允恭天皇 治世에 新

- 1) 《古事記》遠飛鳥宮卷에는 年號의 記載은 없지만, 金이 藥方을 깊이 알고 있었으며, 天皇의 病을 고쳤다고 나와 있다. 《日本書紀》卷 13에는 允恭天皇 3年(414) 가을에 新羅에서 醫師가 來朝하였다고 한다. 이 두記事는 同一事實을 記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羅로부터 金波鎮漢紀武가 來朝하였다는 記事<sup>1)</sup>이며, 그후 朝鮮半島諸國에 醫師의 派遣을 요청 또는 醫學지식을 求하였다는 記事가 《古事記》《日本書紀》에 남아 있다. 이런 記事들의 人名과 年代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中國醫學의 傳來가 朝鮮半島經由하였다는 것은 當時의 交通事情으로 미루어 볼때 틀림없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醫學관계자의 渡來와 아울러 醫療技術이 傳來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書籍도 같이 왔을 것이지만 그 점에 관해서는 記錄이 없어 實情이 不明이다.

中國文化는 600年 第1回的 遣隋使派遣때로부터, 中國으로부터의 直接導入이 積極적으로 企圖되었으며, 新羅와의 國交惡化도 관계되어, 이와 같은 직접 루트에 의한 比重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導入된 기술의 內容이나 들어온 書籍의 명칭 등에 관한 記錄이 없다. 또 《醫疾令》의 遺文<sup>2)</sup> 등에 나오는 醫療制度도 中國制度를 모방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지만 一致되지 않는 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日本의 實情에 맞추기 위하여 변경한 것인지 또는 먼저 朝鮮半島로부터 傳來된 醫學에 由來하기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다.

## 2. 《醫心方》의 引用書

《醫心方》은 984년에 丹波康賴에 의하여 편찬된 30卷의 서적이다. 이 서적의 편찬목적은 序文이 없기 때문에 분명치 않지만 多數한 醫書로부터 病因과 藥物治療, 鍼灸治療 등에 관한 記述을 引用하여 疾患마다 정리하여 배열한 臨床醫學全書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잘 알려져 있는바와 같이 出典을 明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당시의 倭·醫書에서는 유례가 없으며, 唐의 王燾의 《外台秘要》(752年撰)과 더불어 그런 점에서 귀중한 서적이다.

《醫心方》에 引用된 책의 수효는 書名の 引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치 않다. 예컨대 《崔禹》, 《崔禹錫》, 《崔禹食經》, 《崔禹錫食經》이라든가 《素問》, 《素問經》, 《黃帝素問》 등은 각각 崔禹錫撰의 《食經》 및 《黃帝內經素問》등인 것으로 생각되나 그런 서적들이 대부분 現存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그와 같은 명칭의 조그만 差異도 모두 별개의 것으로 쳐서 獨立된 책으로 셈을 하면 總數가 약 280이 되지만 그와 같은 重複을 고려에 넣으면 引用書의 實數는 230정도 일 것이다. 그러나 《外台秘要》의 引用書數가 약 70인 것을 생각한다면, 2,3배 이상이 된다. 引用은 醫書뿐만 아니라, 《史記》, 《大清經》, 《抱朴子》 등 약 45의 歷史書 또 道教書도 들어 있으므로 引用된 醫學書의 實數는 약 190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醫書 이외의 부류에 속하는 것 중에도 《最勝王經》《千手觀音治病合藥經》 등의 佛書는 佛教醫學書로 취급되었던 것으로 생각됨으로, 印度醫學書로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大清經》등도 養生書와의 구별이 어렵다.

引用書는 대부분이 이미 亡失되었을 뿐만 아니라 《隋書》經籍志나 《日本國見在書目錄》 등의 公私의 藏書目錄에도 올라있지 않는 것이 많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바와 같이 書名の 引用이 不正確하므로 그들 引用書의 性格을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것이 곤란하지만, 書名과 引用文으로부터 추측컨대 引用醫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處方集이며 過半數인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醫學理論을 취급한 책은 《黃帝明堂》, 《黃帝九卷》 등을 포함시켜도 불과 8書에 지나지 않는다. 또 紙面の 대부분이 諸家の 處方例로 할당되어 있어 臨床治療를 對象으로 하는 책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處方集 다음으로 많은 것이 養生書이며 43書에서 인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五石散 服用에 관련된 것이며 引用回數도 그리 많지 않고 19, 20의 두개의 卷에서만 인용이 나오고 있다. 食物療法에 관련된 서적도 11종 인용되고 있지만, 本草書는 陶弘景과 蘇敬의 注를 각각 독립된 책으로 쳐도 10종에 불과하며, 鍼灸의 전문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12종 뿐이다.

2) 《政事要略》卷 95下, 《國史大系》本(吉川弘文館刊)에 의함.

### 3. 《醫心方》引用書의 由來

弘用書 중에서 《鑑眞服鍾乳隨年齒方》과 《鑑眞方》은 아마 日本에서 편찬된 것일 것이며, 그 외의 醫書는 모두 外來의 것으로 생각된다. 또 《新羅法師方》과 《新羅法師流觀秘密要術方》, 《新羅法師秘密方》,<sup>3)</sup> 《百濟新集方》의 4書는 그 書名으로 보아 朝鮮半島由來의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그 引用處方數도 合計 6에 불과하며, 編纂場所가 中國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醫心方》과 同一한 傾向을 가진 《外臺秘要》는 約 200年前에 完成되고 있었으므로, 當時에 이미 渡來되어와서, 《醫心方》編纂時에 참고가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日本國見在書目錄》에도 《外臺秘要》의 名稱은 보이지 않으며,<sup>4)</sup> 《醫心方》에 《外臺方》에서 引用된 것이라고 되어있는 處方에 해당되는 것을 現存의 《外臺秘要》中에서 찾아낼 수 없다. 또 《醫心方》과 《外臺秘要》의 2書에 共通으로 引用되고 있는 醫書는 約 25에 불과하며, 그것들마저 引用處方이 一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으로, 《醫心方》에 引用되어 있는 處方은 《外臺秘要》에 인용된 것을 그대로 또 인용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2중으로 인용된 唯一한 예로써는 《養生方》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病源候論》의 一部文句로서 引用되고 있는데 불과하다. 《外臺秘要》와 같이 出典이 明示되어 있는 책이 그밖에도 또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므로, 그런 종류의 책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否定할 근거는 없지만, 《醫心方》에 引用된 책의 大部分은 當時 日本에 存在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여도 過當을 것이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日本國見在書目錄》과의 관계이다. 이 책은 875년부터 20年 정도의 사이에 日本에 存在하였던 漢籍의 目錄이므로, 거기에 收載되어 있는 160餘의 醫書中에서, 《醫心方》에 引用되고 있는 것은 約 1/5인 31에 불과하다. 《見在書目錄》의 醫方家의 項에 收載되고 있는 書籍은 醫學理論과 本草, 神仙方에 관한 것이 비교적 많다는 것도 그 하나의 原因이겠지만, 《醫心方》에 많은 處方集類에 국한시켜 보더라도, 《見在書目錄》에 있는 約 70書中에서, 이 책에 引用되고 있는 것은 불과 約 20이다. 《見在書目錄》에 收錄되어 있지 않는 것은 《隋書》經籍志 등에도 記載가 없어 內容을 잘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그것들 중에는 이 책에 引用되고 있는 《僧深方》이 《外臺秘要》등에 記載되어 있는 《深師方》과 同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sup>5)</sup>이라든가, 《龍門方》의 處方이 中國河南省의 龍門藥方洞의 入口壁에 조각되어 있는 處方과 꽤 높은 比率로 一致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龍門의 寺院에 傳해져 내려온 것을 그곳을 訪問한 사람이 筆寫하여 갖고 돌아와서, 龍門에서 傳해져 내려온 處方集이라는 뜻에서 《龍門方》이라는 書名을 붙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만 책에는 다른 名稱으로 記錄되어 있는 책과 一致되는 것이 있을런지도 모른다. 또 《見在書目錄》에 收載되어 있지 않는 책중에서도 《夏侯氏藥方》이라든가 《效驗方》, 《華佗方》들처럼 數卷으로부터 10卷정도의 小部書는 限定된 醫師들 사이에서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記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105卷이라든가 170卷이라고 되어 있는 《范汪方》<sup>6)</sup>과 같은 大著를 못보고 빠뜨렸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見在書目錄》編纂時에는 日本에 存在하지 않았고, 그 후에 導入된 것이라고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 時代에 存在하던 中國醫書는, 623년에 歸國한 惠日을 비롯하여, 隋唐에 派遣되었던 醫師를 중심으로 한 留學生과 留學僧이 歸國할 때에 갖고 돌아온 것이 많을 것이지만, 前述한 바와 같이 遣唐

3) 三木榮《朝鮮醫書誌》1973年, 學術圖書刊行會刊)에도 있듯이, 이 3書는 同一書인지 또는 각각 별개의 3書인지는 不明이다.

4) 藤原佐世《日本國見在書目錄》, 《續群書類總》第30輯收本(續群書類總完成會刊本)에 收함.

5) 岡西爲人《宋以前醫籍考》p. 546, 1969年 古亭書屋(臺北)刊.

6) 《隋書》經籍志《范東陽方》105卷, 錄1卷, 范汪撰, 梁176卷), 《舊唐書》經籍志《雜藥方》170卷, 范汪方, 尹穆撰), 《新唐書》藝文志《尹穆纂范東陽雜藥方》170卷).

使廢止後<sup>7)</sup>에도 增加되었다고 생각됨으로, 그 당시부터 來航이 增加된 唐의 商船에 의한 루우트도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醫心方》編纂당시 이미 存在하고 있던 《千金翼方》이나 《外臺秘要》 등의 중요한 책이 이 책에 引用되고 있지 않는 것도, 그런 책들이 인용의 가치가 없어서 除外되었다기 보다는, 丹波康賴가 利用할 수 있는 범위내에 存在하지 않았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며, 그와 같은 하나의 원인으로서 專門家以外的 사람에 의한 輸入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 4. 引用書의 原典

現存하는 醫學古典과의 比較에 의하여, 《醫心方》에 引用된 醫書중에서, 《病源論》과 《千金方》은 《諸病源候論》과 《千金要方》의 略稱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葛氏方》은 《肘後方》에 해당되는 것으로 推定되지만 그밖의 大多數의 책은, 《素問》, 《太素》 등의 少數를 제외하고는, 現存하는 책중에서 그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인용된 것들이 인용될적에 어떤 텍스트를 사용하였으며, 어느 정도까지 忠實하게 인용되었는지를 推定할 수 없지만, 現存하는 것에 관해서는 引用文과 現行텍스트의 對應部分과의 사이에 꽤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다른 부분중에는 引用할때 쓰기 쉽하기 위하여 소용없는 記載를 생략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는가를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醫心方》의 引用文中의 語句가 現行텍스트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든가 前後의 關係가 거꾸로 되어있는 것들 중에는 사용한 텍스트의 차이에 原因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成立當初의 原典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本來의 텍스트에 가까운 것인지를 추정하기가 곤란하지만 部分的으로는 추정 가능한 것도 있다. 예컨대 漢代의 新出土資料의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粉末製造法의 〈治〉法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現行의 《千金要方》中에는 〈治下節〉라는 記載가 約 356處方에서 볼 수 있다. 《醫心方》에는 그의 約 1割이 引用되고 있지만, 〈治下節〉라고 指示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治〉와 〈治節〉, 〈治下節〉가 하나씩 있을 뿐이며, 그외에는 그저 간단히 〈下節〉라고 되어있든가, 아무런 指示도 없는 것이 많다. 〈下節〉는 筆寫때에 〈治〉 또는 〈治〉의 글자를 脫落시켰을 가능성도 있으나, 〈治下節〉라는 語는 前記處方 이외의 《醫心方》에 引用된 《千金要方》의 處方中에서도 전연 찾아볼 수 없다. 또 煎劑에 관해서는 《醫心方》中에서 그 構成生藥에 대하여 〈切〉이라고 指示하거나 아무런 指示도 없는 것이 現行의 〈千金要方〉의 텍스트에서는 〈咬咀〉라고 指示되어 있는 例가 꽤 많이 보인다. 現行의 《千金要方》의 텍스트는 北宋의 1066년에 校勘된 것이 基本이 되고 있었으며,<sup>8)</sup> 校勘作業을 받고 있지 않은 《肘後方》에서는 그런 現象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治下節〉 또는 〈咬咀〉라는 語로 바뀌인 것은 最終적으로는 北宋의 校勘時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 《醫心方》에 引用된 處方에는 現行의 《千金要方》과 比較할 때 理解하기 힘든 것도 있으며, 그런 점으로 보아 10世紀末頃に 日本에 存在한 《千金要方》 등의 醫書가 반드시 最善의 텍스트는 아니었었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은 仁和寺本の 《太素》 또는 《新修本草》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醫心方》의 引用文에는 現行의 이들 醫學古典의 刊本에서처럼 意圖的인 整理나 改變은 加해져있지 않으며, 古態를 잘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 5. 引用處方의 選擇과 整理

《醫心方》의 引用處方은, 同一處方이 重複하여 引用되기도 하고, 어디까지를 獨立된 處方이라고

7) 最後의 遣唐使는 838年 出發, 同年 및 翌年に 歸國. 894年, 遣唐使廢止를 決定.

8) 岡西爲人 〈宋代의 醫書校勘에 關하여〉《日本醫史學雜誌》7卷 4號(1957).

보아야할지 判定困難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곤란하지만, 引用回數가 많은 것은 《病源候論》, 《千金要方》, 《肘後方》, 《小品方》, 《產經》, 《范汪方》, 《僧深方》, 《錄驗方》 등이다. 그중에서 《小品方》以下の 것은 現存하지 않기 때문에 引用된 處方이 전체적으로 볼때 어떤 것이었는지 분명치 않으나, 《千金要方》의 경우에는 《醫心方》에 引用된 處方은 生藥構成이 簡單한 것이 많다. 그다지 큰 著書는 아니지만 《肘後方》으로부터의 引用이 《千金要方》다음으로 많은 것도 그 책의 處方이 少數의 生藥으로 구성된 간단한 것이 많기 때문이며, 《龍門方》이라든가 《救急單驗方》 등의 處方集에서 引用되고 있는 것도 아마 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이와 같은 간단한 處方을 선택한 이유로서는 生藥의 入手가 困難하다든가, 複雜한 處方은 아직 그 당시에는 활용하지를 못했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 以上の 이유는 분명치 않다. 引用한 處方은 疾患制로 분류하여 그 첫머리에 《病源候論》으로부터의 引用文을 달아놓고 있는 것은 中國의 處方集 양식에 따른 것이겠지만 疾患의 排列順序는 《病源候論》과는 一致하지 않는다. 또 《千金要方》에서는 婦人病과 小兒病을 따로히 하고 있고 疾患은 臟腑別로 분류하고 있다. 《醫心方》은 《千金要方》에서 가장 많은 처방을 引用하고 있지만 疾患의 分類에 있어서는 그 책에 따르지 않고 보다더 實用에 適合한 分類로 되어 있다. 이런 分類가 丹波康賴 자신의 생각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이 책에 引用된 處方集중의 어느 것인가에 따르고 있는지 분명치 않지만, 이와 完全히 一致되는 것은 現存書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6. 結 論

奈良・平安時代는 中國大陸의 文化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日本文化의 기초를 쌓은 時代이며 醫學에 있어서도 原始的인 醫療의 단계를 탈피하여 體系的인 醫療로 들어간 時代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時代의 醫療에 관한 資料가 적으며, 史書 등에 流行病 등의 記事가 散見될 정도이며, 診療의 實態를 傳할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으며, 醫療制度를 제외하고는 《醫心方》은 當時의 醫學 내지는 醫療에 관한 唯一한 綜合資料라고 하여도 過當은 存在이다. 그래서 이 醫書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日本醫學의 創成期의 모습을 알리고 시도하였으나 關聯資料의 不足도 겹치어, 이 醫書의 成立과 그 成立에 영향을 준 諸要因의 一端을 아는데 끝었다. 이 책에 引用된 醫書는 대부분이 中國書이며, 獨自의인 醫學理論이나 醫療方을 案出할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의 引用書傳來의 經路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그것들이 만듯이 最善의 텍스트는 아니었으며, 中國에 건너갔든 留學生이나 留學僧이 지니고 돌아온것 뿐만 아니라, 商業貿易에 의하여 輸入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醫心方》은 30卷이라는 방대한 책이지만, 그 책에 採錄되어 있는 處方이 簡單한 生藥構成인 것이 많고, 生藥의 入手에 制約이 있었든것과 複雜한 構成의 處方을 活用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引用處方의 整理를 할때에 疾病群의 階級에 관해서는 中國의 處方集에서는 볼 수 없는 配慮가 되어있어, 未發達이라고는 하나, 醫療技術 내지는 醫學思想이 어느 정도의 水準에는 도달되고 있었음을 想定할 수 있다. 近年 平城京의 遺跡 등에서 多數한 木簡이 出土하여, 그중에 醫療에 관한 것도 있다고 한다. 中國에서 最近發見된 簡書나 帛書의 研究에 의하여, 《素問》 등의 醫學古典의 成立事情 또는 漢代의 醫療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처럼, 日本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出土資料의 힘을 빌림으로서 大陸醫學受容의 過程이 분명하게 되고, 《醫心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再認識하여야 할 時代가 올른지도 모르겠다.

(洪文和 옮김)

9) 岡西爲人, 佐土丁 <外臺科要醫心方證類本草等所引用之古醫書>《東方醫學雜誌》15卷 10號 (1937)에 의하면, 各書로부터의 引用回數는 《病源候論》561, 《千金要方》481, 《肘後方》385, 《小品方》211, 《產經》185, 《范汪方》151, 《僧深方》146, 《錄驗方》143으로 되어 있다. 但, 이 통계는 引用書名이 나오는 回數이며, 引用處方數는 이보다도 많게 되어 있다.